

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

주간 ESG 뉴스 2026.08.28~2026.09.04

구분	시장 동향
Energy	● 덴마크, 상반기 태양광 337MW 증설...대규모 프로젝트가 성장 주도 (2026.08.31, PV Magazine) 덴마크는 '26년 상반기 태양광 336.7MW를 신규 설치해 +11%YoY 증가. 이 가운데 271MW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로, 주거용 태양광보다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주도
	● 유럽, 상반기 풍력발전 8.8GW 증설 (2026.09.01, Reuter) 유럽은 '26년 상반기 8.8GW의 풍력발전 설비를 신규 설치해 약 +30%YoY 증가. 독일이 전체 신규 용량의 39%를 차지. 유럽의 누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311GW에 도달
Government	● 미 연방법원, 뉴욕주 '기후 슈퍼펀드법' 시행 불가 판결 (2026.09.01, Reuters) 미 연방법원은 화석연료 기업에 25년간 총 \$75B의 기후피해 부담금을 부과하려던 뉴욕주 '기후 슈퍼펀드법'이 연방 청정대기법(Clean Air Act)과 충돌한다며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
	● EU, 그리스 €4.8B 규모 사회기후계획 승인 (2026.08.31, ESG Today) EU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수익을 활용해 청정전환을 촉진하고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스의 €4.8B 규모 사회기후계획을 승인. 주택 개보수, 전기버스 보급 등을 통해 '32년까지 연간 81만 톤의 CO₂ 감축이 목표
Corporations	● Amazon, 스웨덴 풍력 프로젝트 4곳과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 (2026.08.31, ESG Today) Amazon은 스웨덴 남·중부 풍력 프로젝트 4곳과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약 200MW의 신규 무탄소 전력 공급을 확보. 모든 프로젝트 가동 시 스웨덴 내 풍력 투자 규모는 985MW로 확대될 예정
	● Google, Fervo와 396MW 지열 전력공급 계약 체결 (2026.09.01, Reuters) Google은 Fervo Energy의 유타주 Cape Station에서 396MW의 지열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. 계약에는 Google이 추가 옵션 행사 시 '30년까지 총 공급규모를 약 1GW로 확대할 수 있는 옵션 또한 포함
Funds	● 인도 NIIF, 신규 인프라 펀드에 \$2B 출자 확보 (2026.08.31, Reuters) 인도 국부펀드 NIIF는 Infrastructure Fund II의 1차 모집에서 \$2B 출자 약정을 확보. 이는 해당 펀드의 목표액인 \$3.2B의 60% 이상에 해당. 해당 펀드에는 AustralianSuper·CPP·Ontario Teachers를 비롯한 글로벌 연기금이 다수 참여. 펀드는 에너지·교통·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전기 모빌리티와 도시 인프라에도 투자할 예정
	● 덴마크 주요 연기금, '30년 녹색투자 목표 5년 조기 달성 (2026.09.01, IPE) 덴마크 주요 연기금을 비롯한 연금업계의 기후·환경 관련 투자액은 '25년 말 +24%YoY 증가하며 '30년 목표인 약 \$70B를 5년 앞서 초과 달성.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·에너지 인프라·기후기술 등 해외투자가 56%를 차지하며, EU 택소노미 및 SFDR 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투자가 확대
	● 아프리카 주요 연기금, FIPRE 기반 기후회복력 펀드에 참여 (2026.09.03, gazetengr) 아프리카 주요 연기금은 총 \$750M 규모의 기후회복력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. 특히 이번 펀드에는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신규 의사결정 지원 프레임워크가 도입됨. 기능·영향·변영·회복력·형평성 등 5개 축의 비보완적 평가 원칙을 도입한 FIPRE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스크 인식을 낮추고 현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

자료: 언론보도, 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투자전략팀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